

90.8.22

아시아 가정학회 주최 학술세미나

한국 일본 등 14개국 가정학 전공학자 30여명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각국의 의식 주 변화양상과 가정학의 역할에 관한 발표회를 가져 관심을 모은다.

‘가정학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가정학회(회장 이기열) 주최로 20,21일 이들 동안 서울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현대화에 발맞춰 가정학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서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아시아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가정학교사협회 회원인 에델 총은 “취업주부를 위해 정부가 한 아이당 50~1백달러의 탁아비용을 지원하고, 아이가 아플 때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 휴직이 4년간 보장된다”고 싱가포르의 ‘일하는 엄마’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에 타이 라자망갈

“가정학서 공해해결 역할담당을”

싱가포르의 취업주부 사회보장제도 소개 눈길

“가정학이 공해와 자원고갈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일본 가쿠 게이대학 교자와 기미코 교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과 정부를 환경보호 운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가정학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 홍콩의 교육 담당가 로산 산토라는 “아시아 도시지역 여성들은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과 현대화된 직업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겪

라대학 아모른나트 차례온차이 교수는 “타이에선 여성노동력의 7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땅한 직업이 없는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뛰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이번 세미나에선 △인도네시아에서의 전통 주거형태의 소멸과 현대의 주거형태 △한국 주거양식의 변화와 식생활의 양상 △중국 식생활의 현황과 미래 전망 △인도 지역 사회의 영양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농업계획 등이 발표되었다.